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안녕하세요? 주임신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모두들 잘 지내시지요?

지난번 문자메세지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미사가 없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사순4주일(22일)에는 미사를 봉헌할 수 있길 희망한다 하셨지만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동체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세계가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3차세계대전은 핵전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듯 싶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대처하며 의연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여, 보다 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스와 메르스가 있었고 지금 코로나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사태에 슬기롭고, 신앙인답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으신 그 삶을 본받아 먼저 함께 그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고통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심을 다해 은총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무기력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느끼며 하느님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해야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날을 기다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남은 사순시기 주님의 은총과 함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3월14일 주임신부 구본영 바오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시기를 올해는 참으로 혹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성당에 나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3월 22일 (사순4주일)에는 미사를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하고, 정부의 방침과 협조 요청에 따라 부득이 그 시기를 ()로 연기해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성주간 만큼은 모두가 함께 하느님께 제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념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주임신부 구분영

추신 : 사무실근무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합니다. (월요일 휴무)

미사봉헌 및 교무금 납부 등 업무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많이들 힘드시지요? 길음동성당 주임신부입니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교구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4월2일(목)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사 재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며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3월25일(수)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9일기도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2. 미사 이외의 모임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중단합니다.
3. 미사 참석 시 질병 관리본부가 권유하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체온측정, 손세정액,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성가없이 미사진행
-거리를 두고 앉으며 악수 등 신체적 접촉 금지
4.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 노약자, 어르신, 유아·초·중·고 학생들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송을 바치거나, 평화방송 미사로 주일미사 의무를 대신합니다.
5. 미사 참석 전 성찬 및 통회와 고백의 기도를 바침으로서 영성체를 준비합니다.
6. 개별고백을 하실 분들은 별도로 마련된 장소 (1층 상담실)에서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시기 서로 위로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미사 봉헌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2020.3.21. 길음동성당 주임신부 구본영

세대주에게만 발송하였습니다. 가족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동성당 주임신부입니다. 모두 들 건강하시지요?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 교구 사제평의회에서는 미사재개 시기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개 시기는 사태의 추이를 보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마름을 생각하면 부활대축일을 포기 할 수 없지만, 사회적 연대성을 생각하면 이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기에 국민의 한사람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고통에 함께하며 협력하는 것이 보다 복음적인 삶이라 생각되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하느님께 제사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안에 있고 하느님이 우리안에 계시기에 모든이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노력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혀 줄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신앙인답게 이 난관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권고합니다. 1)지금과 같이 성전에서는 저희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매일 아침7시에 미사를 봉헌 할 것입니다. 4월 6일(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성당을 개방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야합니다. (마스크 쓰기, 인적사항적기, 손닦기, 2m이상 거리두기) 사무실은 지금과 같이 정상 근무를 합니다. 2)모든 회합은 계속 중단합니다. 교육관 시설 사용도 금지합니다. 3) 성지가지는 축성하여 성전 앞에 마련하오니 개별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일 전례는 오후 8시 평화방송을 통하여 교구장님 집전으로 거행됩니다. 온가족이 다함께 모여 전례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예수님을 모십시오. (성령 영성체) 4)주일미사 또한 평화방송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족을 신앙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매일 오후 9시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도록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치기 바랍니다. (본당 홈페이지에 기도문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과 은총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빨리 사태를 극복하고 성전에 모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길 희망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임신부 구본영 바오로

추신: 교회의 재정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무금 통장으로 우리은행 납부 가능하며 성북신협에 문의 나 납부 또는 자동이체 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058-408772-01-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신협 131-000-005714 천주교서울대교구)

긴급한 알림은 구역장님들을 통해 카톡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0.04.02